

와우! 요금 내리니 올라가네

〈스페셜포스〉, 〈스타크래프트〉, 〈리니지1,2〉등 이른바 게임순위 '부동의 3인방' 을 제외한 10위 권 내 게임들의 순위싸움이 치열한 한 달이었다. 리니지 시리즈가 주도하고 있던 일명 '노가다' 중심의 한국 온라인 RPG 시장에서 방대한 세계관과 퀘스트 위주의 참신한 게임성으로 RPG 흐름 자체를 바꾸어 놓았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이하 '와우')는 지난달 17일 18시를 기점으로 전격적으로 '가격인하' 를 단행, 제 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상용화 초기, 다소 비싼 정액요금으로 유저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던 와우는 7일, 30일, 90일의 정액 요금을 각각 20%씩 인하했다. 특히, 30일 기준으로 1만9,800원으로 책정된 와우의 이용 요금은 최근 상용화를 단행한 〈로한〉과 더불어 30일 기준, 2만원 이하의 온라인 게임 가격파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온라인게임들의 4월 한 달간 게임동향을 살펴봤다.

자료: 게임트릭스

[게임 장르별 기상도]

RPG	FPS
 <p>와우는 가격인하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3월보다 2계단이 상승했다. 또한 로한도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다.</p>	 <p>상승세를 이어가던 서든어택이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워록이 2계단 상승 힘을 내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체상태를 보였다.</p>
아케이드	보드(포커 등)
 <p>국내 온라인게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RPG와 FPS 사이에서 아케이드게임으로는 유일하게 오디션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다.</p>	 <p>모처럼 한계게임의 신맛고, 세븐포커 등 보드게임의 동반 상승 이어졌다.</p>

지난달 17일 와우의 가격인하 단행은 기존 대부분의 RPG 요금이 30일 기준으로 2만원 대에서 책정되었던 관례에 비춰볼 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전에도 2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상용화를 시작한 게임들이 있기는 했지만, 와우처럼 최고의 퀄리티를 인정받은 게임이

1만원 대의 요금을 채택함에 따라 향후 서비스 될 다른 개발사들의 게임도 2만원 이상의 요금을 책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와우는 지난달 게임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점유율 5.8%를 기록, 전체 게임순위 5위에 랭크되었다.

와우와 함께 주목해야 할 게임은 바로 〈오디션〉이다. 전례 없이 큰 폭으로 게임 순위가 오르고 있는 오디션의 상승세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지 게임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월 31일, 총점유율 0.54%를 기록했던 오디션은 불과 세 달 만에 총점유율 2.77%를 기록, 무려

400% 이상 점유율이 상승하는 괴력을 발휘했다.

특히 오디션의 경우,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의 경우, 클로즈 베타 단계에서부터 접속자 폭주로 인해 서버가 다 운되는 등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다. 오디션은 배틀 댄싱이라는 참신한 소재를 바탕으로 음악과 댄싱, 그리고 커뮤니티가 조화롭게 어울리며 유저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여성 유저가 많은 게임은 실패하지 않는다' 라는 속설을 증명하듯, 여성유저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카트라이더>의 전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핵심 여성유저들의 기반으로 향후 지속적인 인기몰이를 이어갈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향후 '대박'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10위 진입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접쳐지고 있다.

조이시티로 서버 통합 <프리스타일>

KTH '파란'과 제이씨엔터테인먼트 '조이시티'를 통해 이루어져 왔던 농구 게임 <프리스타일>서비스가 이달부터 조이시티로 통합된다. KTH와 제이씨엔터테인먼트는 2004년 12월 유료화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서비스 권한을 부여하는 프리스타일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달 30일로 계약이 종료됐다. 계약 만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양사는 연장 계약을 위한 협상을 벌여 왔으나, 상호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 종료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사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파란게임에서 프리스타일을 즐겨 왔던 게이머들은 지난달까지 이전동의 절차를 거쳐, 조이시티 서버로 합류하게 됐다.

그러나 조이시티 회원 수에 비해 기존 파란 회원수가 현저하게 많았기 때

4월 온라인게임 순위

조사기간: 2006년 3월 21일~4월 21일

순위		장르	게임 타이틀	점유율 (%)	평균 총 사용시간 (시간)	PC당당 사용시간 (분)	평균 체류시간 (분)
1	-	FPS	스페셜포스	15.04%	705,688	2,207	49
2	-	RTS	스타크래프트	11.00%	516,233	1,494	56
3	-	RPG	리니지2	7.22	338,868	1,198	119
4	-	RPG	리니지	7.03%	329,841	1,155	94
5	▲2	RPG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5.80%	272,162	1,079	108
6	▼1	레이싱	카트라이더	5.57%	261,554	794	41
7	▼1	FPS	서던어택	4.29%	201,389	756	49
8	-	RTS	워크래프트3	3.99%	187,087	840	72
9	▲1	RPG	로한	3.38%	158,472	864	108
10	▼1	스포츠	프리스타일	3.34%	156,569	729	51
11	▲4	아케이드	오디션	2.08%	97,405	431	53
12	▲1	고스트	한게임 신맛고	2.06%	96,577	361	23
13	▼2	RPG	그라나도 에스파다	1.85%	86,723	419	89
14	-	RPG	던전앤파이터	1.58%	74,040	395	61
15	▼3	RPG	메이플 스토리	1.49%	70,029	342	50
16	▲2	RPG	뮤	1.43%	67,298	424	74
17	▲2	RPG	열혈강호	1.38%	64,791	475	82
18	▲2	FPS	워록	1.29%	60,520	281	65
19	▼2	아케이드	켓앰프드	0.90%	42,235	293	49
20	▼4	FPS	건즈 온라인	0.81%	38,209	306	39

신뢰도 95% 오차율 4.71%

문에 무엇보다 유저의 효율적인 서버 이전이 프리스타일 통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 이상 할 것 없다! <GE>

'김학규'라는 이름만으로도 최소한의 유저수 보장이 가능했던 <그라나도 에스파다>(이하 GE)가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오픈 베타 초기 3%대 이상을 기록하던 점유율은 최근 절반 이상 감소하며 1.5%에 머물고 있다. 3명의 캐릭터를 동시에 운영한다는 신선함이 유저들의 관심을 이끄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면,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RPG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손

꼽히고 있는 커뮤니티 활동이 약하다는 점이 많은 유저들로 하여금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현재 만렙을 비롯한 70 레벨 이상의 고렙들이 즐비함에도 불구하고 사양 이외에는 마땅히 즐길 요소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은 개발자의 의도보다 한 박자 빠른 국내 유저들의 특성으로 볼 때 대부분의 RPG에서 보여지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MCC라는 시스템과 화려한 그래픽, 그리고 영화 OST를 방불케 하는 뛰어난 배경음악만을 강조한 나머지 정작 가장 중요한 게임 내 '즐길 요소'에는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